

노무현정부와 민주주의 발전



강만길(상지대 총장)

노무현정부는 우리 역사상 21세기 최초의 정부다. 지난 20세기를 통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전반기 일제강점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압살 당했고, 그 후반기 민족분단 시대에는 40년 이상 문민독재와 군사독재로 얼룩졌으며 마지막 10년 남짓 계속된 두 번의 민간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다소 소생되었다.

우리 정도의 문화수준에 있는 민족사회가 20세기 전체를 불행하게도 식민지시대와 민족분단시대로 지냄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기말에 성립된 김영삼·김대중 두 민간정부에 와서야 식민지시대와 문민독재 및 군사독재시대를 통해 질식되고 훼손되었던 민주주의를 겨우 회복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군사독재정권 후 제1기 문민정권으로서의 양김 정부시대의 민주주의 역시 정착되고 질 높은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저항적이고 급조적이며 불안한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민간정부이며, 또 민주화운동을 해 온 정치세력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러나 군사독재시대에 함께 투쟁으로서의 정치를 해 온, 다시 말하면 군사독재정권과 동시대적 정치를 해 온 세력에 의해 성립된 정권으로서의 제약성과 한계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삼정권이 군부세력을 정치권에서 일단 배제했고, 김대중정권이 남북관계

를 종래의 대결관계에서 화해관계로 돌려놓았으면서도 군사독재정권시기의 부정부패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음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21세기 정권으로서의 노무현정권은 그 역사적 위치 자체가 20세기의 김영삼·김대중정권과는 다르다. 노무현정권은 20세기 후반기 군사독재정권과의 관계에서 무관한, 말하자면 제 2기 민간 정권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 위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도 식민지시대와 남북대결시대가 연속된 20세기적 수준을 넘어 21세기적 민주주의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20세기 김영삼·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와 21세기 노무현정부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군사독재정권과 대결하여 '기초적' 민주주의를 전취해야 했던 김영삼정권이냐, 그 '기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에 급급했던 김대중정권과는 달리 노무현정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국민 일반에게 체득될 수 있게 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일반이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제는 우리의 문화수준에 비해 너무도 강화되어 있는 중앙집권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의 과제는 IMF체제 이후 더 심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며, 사회적 민주주의의 과제는 정치적 분권화와 경제적 균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문화적 민주주의의 과제는 분단시대를 통해 이질화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갖고 닦아서 세계 수준으로 올려 놓는 일이다.